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사회복지학과	파견대학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중국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의가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2024년 하반기, 나는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현지 대학 지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파견 대학이 결정되자마자 한림대학교 글로벌교류센터에서 진행한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체적인 일정과 함께 교환학생 가이드를 제공해주었다. 이 안내를 바탕으로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며 교환학생 생활을 향한 설렘을 키웠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의 온라인 학생등록이었다.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의 국제교류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하였다. 입력 항목에는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업로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여권 사진과 증명사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사진 규격도 까다롭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등록할 수 있었다. 또한 지원 페이지에는 영어 버전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중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나로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문항에 답변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서류 제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이었다. 일부 타 대학은 건강진단서, 재정 보증서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나는 X2 비자 대상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서류 준비 부담이 크지 않아 전반적인 지원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느껴졌다.

신청이 완료된 이후,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 측의 서류 검토 과정이 약 2달가량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은 입학 통지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이 서류는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까봐 다소 불안하기도 했다. 특히, 입학 통지서가 도착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조금만 더 늦어졌다면 비자 발급 일정이 촉박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서류가 발급되었고, 예정된 일정 안에 비자 신청과 발급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원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중국 현지 시스템과 절차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 역시 한국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 학교 내 행정실에서 직접 촬영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체계적인 온라인 시스템과 명확한 절차 덕분에 전반적인 지원 과정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이번 현지 대학 신청 경험은 처음 접하는 해

외 교육기관 지원 절차였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렸지만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준비만 잘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해외 활동이나 여러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교환학생 파견을 앞두고 출국 전 순차적으로 준비를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중국 비자 신청이었다. 나는 학생 비자인 X2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중국비자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울에 위치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남산스퀘어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았다.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 원본, 여권 사본, 온라인 신청서 출력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 DQ서류, 그리고 비자용 사진 1장이었다. 이 중 비자사진은 규격에 맞게 새로 촬영해야 했지만 나머지 서류는 모두 혼자서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과정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비자 신청 전 인터넷을 통해 후기를 찾아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자센터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다고 하여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이 단기 무비자 관광 정책을 시행 중이어서 그런지 예상과 달리 대기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했고, 빠르게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비자 수령은 신청 후 약 3일 뒤에 가능했으며, 직접 센터를 재방문하여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수령하였다. 입학통지서를 받은 직후 바로 신청을 진행했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 다소 놀랍기도 했다.

항공권은 '트립닷컴(Trip.com)'을 이용해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다. 출국 후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에서 현지 중국인 학생들이 직접 공항으로 픽업을 나와주었다. 이 덕분에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이동이 매우 수월했고, 처음 와 본 광저우에서 큰 어려움 없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생활 준비물 중에서는 특히 샤워기 필터가 매우 유용했다. 중국은 수질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그 정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샤워기 필터를 몇 달간 사용해도 약간만 변색되었는데, 중국 기숙사에서는 일주일 만에 필터가 눈에 띄게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수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기숙사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학교에서 알게 된 한국 학생이 해당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항상 마트에서 생수를 사서 마셨다. 중국에서는 물로 인한 위장 질환이 흔하다고 하니, 예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

미용용품, 의류, 개인 위생용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필품은 현지에서 구입했다. 광저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대형 마트나 타오바오(淘宝), 핀두두(拼多多) 같은 온라인 쇼핑앱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따라서 무겁게 짐을 챙기기보다는 필수품만 간단히 가져오고, 현지에서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결제 수단은 한국과 가장 다른 부분 중 하나였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챗페이(微信支付)나 알리페이(支付宝)와 같은 모바일 결제 앱을 사용한다. 식당, 마트, 교통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 QR코드 결제로 빠르고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보다 결제가 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카드 역시 위챗(微信) 안에서 사용하는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 따로 실물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통신은 학교 측에서 파는 유심칩을 구매하여 휴대폰에 삽입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중국 내에서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일부 외국 앱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VPN 앱을 유료로 구매해 사용해야 했다. VPN을 통해 한국 앱과 SNS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릴 때가 있어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아예 안되는 날도 있어 가족들과 위챗(微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처럼 비자 발급부터 항공권 예약, 기숙사 입주, 생활용품 준비, 통신 환경까지 모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두거나 방법만 알면 현지 적응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출국 전 충분한 정보 탐색과 준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광저우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처음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해보는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수업 정보 (분량: 1장)



교환학생 기간 동안 나는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에서 중국어 기초 과목 두 가지를 수강하였다. 수강한 과목은 Elementary Chinese Listening and Speaking과 Elementary Chinese Integrated Course 1로, 모두 초급 수준의 중국어 수업이었다. 이 두 과목을 통해 나는 중국어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쌓을 수 있었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Elementary Chinese Listening and Speaking 수업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성조 발음 연습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며 학습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친구들과 짝을 지어 간단한 상황극을 만들고 앞에 나와 발표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반복하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했고, 발표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

Elementary Chinese Integrated Course 1에서는 읽기, 쓰기, 문법 등 중국어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한자 쓰기 연습이 많았으며, 매 수업마다 단어 쓰기, 문장 배열, 짧은 작문 과제가 주어졌다. 기초부터 반복적으로 배우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성조, 어순, 단어 사용 등 중국어의 뼈대를 안정적으로 익힐 수 있었고, 수업을 통해 꾸준히 쓰고 말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선생님께서 종종 수업 중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 귀여운 판다 인형이나 판다 볼펜 같은 작은 상품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런 이벤트 덕분에 수업 분위기는 항상 활기찼고, 학생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 역시 퀴즈에 열심히 참여하며 수업에 더 몰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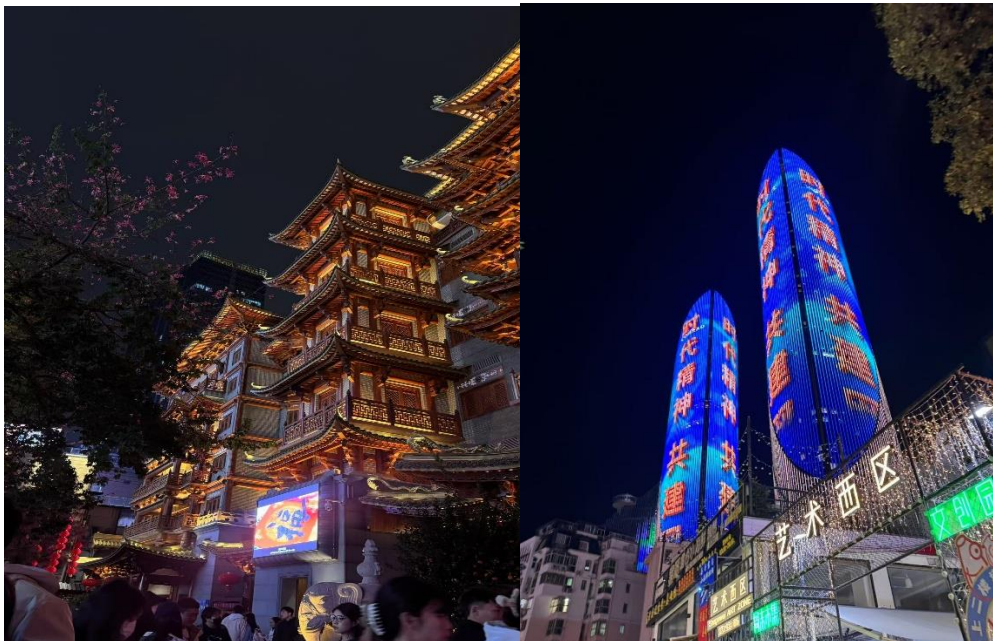
두 과목 모두 동일한 반 구성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반은 총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고, 공통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여 소통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반 친구들과 매일 수업을 함께 듣고 식사하고, 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 또한 향상되었다.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많이 늘었다”며 칭찬해줄 때마다 큰 뿌듯함을 느꼈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 능력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점이 교환학생 기간 중 가장 소중한 성과 중 하나였다.

수업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초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나에게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학기가 중반을 지나면서 외워야 할 단어의 양이 급격히 늘었고, 특히 복잡한 획순의 한자를 쓰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반복 학습과 친구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조금씩 익숙해졌고, 학기 말에는 수업 시간에 중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나 짧은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처음 교환학생 면접 때는 중국어로 자기소개조차 하지 못했던 나였지만, 학기 말에는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중국어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장한 나 자신을 보며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수업을 함께한 친구들과는 수업 외 시간에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과제를 도와주며 가까워졌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나를 위해 작별 선물을 준비해줬고, 우리는 서로의 아쉬움을 나누며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지막 수업 날에는 반 친구들과 함께 두 분의 선생님께 케이크를 선물하고, 소박한 마지막 파티도 열었다.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서로의 노력을 칭찬해주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학기의 마무리를 뜻깊게 장식할 수 있었다. 처음엔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릴까 걱정했지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으로 남았다.

이번 수업을 통해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도전이었으며,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짧다면 짧은 4개월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얻은 경험과 성장은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이때의 추억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에서의 캠퍼스 생활은 낮설면서도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나는 한림대학교에서 함께 파견된 학생과 함께 2인실 기숙사에 머물렀고, 같은 학교 학생과 지내다 보니 의사소통 문제는 전

혀 없었다. 방 크기는 생각보다 넓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나, 화장실과 세면대가 베란다 쪽, 즉 야외에 있어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는 날, 혹은 습할 때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런 구조는 한국과는 달라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기숙사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은 학교 서문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예약 없이 빈 자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고, 도서관이 4층까지 마련되어 있어 늘 자리가 넉넉했다. 특히 내부가 쾌적하고 시원하며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한림대학교에서는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던 나로서는 이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캠퍼스 내에는 학식당이 두 건물에 나뉘어 있어 기숙사와 수업 건물 모두에서 접근이 쉬웠다.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과일이나 간식처럼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고, 가격도 저렴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수업 전이나 쉬는 시간에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 또한, 캠퍼스 내 넓은 운동장 트랙은 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운동뿐만 아니라 노래나 춤 연습 등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한국보다도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며 일상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어과 중국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류했고, 방학 중 한국 방문 계획을 함께 세우는 등 꾸준한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친구의 소개로 '광저우 한국어 교류회'라는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은 한국어에 관심 있는 광저우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언어를 배우고 교류하는 커뮤니티였다. 이곳에서 중국인 친구들과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단기간에 친해져 주 1회씩 만나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소중한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

학교 주변의 생활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캠퍼스 북문 근처에는 맛집이 몰려 있어, 반 친구들과 거의 매일 북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메뉴도 다양해 부담 없이 외식을 할 수 있었다. 택배 시스템도 인상 깊었는데, 한국과는 달리 QR코드로 택배함 정보를 확인한 후, 기계에 바코드를 찍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몇 번 해보니 금방 익숙해졌다.

학교 근처에 있는 '용타이(永泰)'역은 버스나 택시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며, 이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과 맛집들이 모여 있어 가끔 여가를 보내기 좋은 장소였다. 광저우는 인구가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했는데, 저렴한 교통비 덕분에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쇼핑이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텐허(天河)'라는 쇼핑 중심지로 나갔고, 이곳은 대형 쇼핑몰이 많고 거리도 넓어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텐허에서 가까운 명소로는 '캔톤타워(广州塔)'가 있다. 이곳은 광저우의 상징적인 건물로, 야경이 매우 아름다워 자주 방문하였다. 서울이나 춘천과는 달리 도시 규모가 크고, 건물도 높고 화려해 외국 대도시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관광지로는 '베이징루(北京路)'가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불교 사찰인 '대불사(大佛寺)'는 특히 밤에 방문하면 등이 밝혀져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에서 친구가 광저우에 오면 꼭 이 절을 추천하고 싶을 만큼 인상 깊은 장소였다.

교통 면에서는 광저우에는 동역, 남역 등 기차역이 많아 다양한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나도 한 번은 혼자 '광저우동역(广州东站)'에서 기차를 타고 '샤먼(厦门)'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기차가 생각보다 쾌적하고 몇십 분마다 직원이 청소를 해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매우 놀랐다. 그 외에도 광저우 옆에 있는 '포산(佛山)'이라는 지역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같은 광둥 지역임에도 음식 맛도 다르고, 포산에서는 광둥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임에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이처럼 광둥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의 캠퍼스 생활은 단지 공부를 넘어선 다양한 일상의 경험이자, 문화와 사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학교 안의 시설부터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 도시 곳곳을 여행하며 느낀 모든 것이 교환학생으로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고, 이 모든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생활비와 지출은 다양하게 발생했다. 우선 학교에서 제공한 2인실 기숙사를 사용했고, 한 학기 기준으로 4,800위안(약 90만 원)을 냈다. 보험료는 학기당 400위안 정도였다. 등록금은 한림대학교에 내는 것으로 대체되어 현지 학교에는 따로 낸 금액은 없었다.

식비는 한 끼당 5,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나갔다. 학교 근처나 로컬 식당에서는 5천 원 이내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번화가나 쇼핑몰에 있는 식당은 한국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서 외식할 때마다 신경을 썼다. 카페에 파는 커피나 음료도 한국과 가격이 비슷해서 특별히 싸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대신 과일은 정말 맛있어서 자주 사 먹었다.

교통비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평균 400원 정도 들었다. 한국처럼 환승 개념이 없어서 탈 때마다 요금이 부과됐다. 디디(DiDi)라는 택시 앱도 자주 썼는데, 기본 요금이 저렴해서 가까운 거리에는 유용했다. 다만 광저우는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라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엔 오히려 지하철이나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됐다.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다. 포산은 광저우 옆에 있는 도시라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었고, 당일치기로 다녀와서 식비랑 카페비 정도만 1~2만 원 썼다. 샤먼은 혼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왕복 기차비는 약 10만 원 들었고, 기차로 왕복 10시간 정도 걸렸다. 숙소는 이틀 합쳐 15만 원 정도였고, 밥이나 카페비는 전부 1만 원 이내로 해결해서 기차비와 숙소비 외엔 큰 지출이 없었다.

충칭은 한국에서 가족이 와서 4박 5일 여행을 다녀왔다. 광저우에서 충칭까지 비행기 왕복은 15만 원 정도였고, 숙소는 하루에 15만 원 정도였다. 밥값이나 기타 지출은 대부분 가족이 부담해서 직접 낸 돈은 거의 없었다.

한 학기 전체 기준으로 보면, 기숙사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기본 200만 원 정도였다. 여기에 여행비까지 합치면 좀 더 늘어났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물가 차이가 커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6. 자기평가 (분량: 1~2장)



처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외국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졌고, 언어적인 장벽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낯설게만 다가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을 하나씩 겪고 나서 돌아보니, 그 낯섬과 두려움이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자신감이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혼자서도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데도 주저하고, 중국어 한 마디를 하더라도 실수할까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용기와 자신감이 자라났다.

또한,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 형성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언어와 문화를 넘은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느꼈다. 수업 외 시간에도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중국어로도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내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정체되어 있던 내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학교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조차 잘 모른 채 살고 있었는데, 외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고 움직여야 했던 이 시간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와 도전정신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도 조금씩 그려볼 수 있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 밀려왔을 때였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음식, 익숙한 사람들을 잠시 떠나 있다는 현실이 때때로 크게 다가왔다. 특히 초반에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문득 혼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날 때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학교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외로움은 줄어들었다. 스스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재미를 찾아가며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이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 이상의 의미였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나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며 한층 더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짧다면 짧았던 약 4개월의 시간은 내 삶에 매우 특별한 흔적으로 남았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경험은 내 안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또 다른 도전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편입을 하고 전과까지 한 상황이라 전공 학점을 많이 채워야 했기 때문에 교환학생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다. 광동외어외무대학교(广东外语外贸大学)에서 내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교양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을 접고, 2학기에는 전공 수업만 집중적으로 듣거나 필요하다면 계절학기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운 뒤 교환 학생에 지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